

성전과 말씀을 회복한 왕들

-복음으로 여는 역대하-

역대하 36:22-23, 요한계시록 21:22

정윤돈 목사님

* **대하36:22-23**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 **계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어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 성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육간의 절대불가능한 질병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고를 위하여, 교회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분야에 헌신을 쓰기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시는 절대계획과 그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실천하고 도전해야 할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창립 58주년이다. 1967년도에 오금동 지역은 판지촌 지역이었고, 서울시 도로정비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그래서 가구당 6평의 땅에 정착을 했고, 그때 김기수 전도사님과 남대문교회에서 시무하셨던 김근숙 권사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군용 천막을 구입해서 복을 치면서 전도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3000제자와 세계복음화 할 1만 제자 없냐고 물었는데, 58년 동안 몇 만 배의 응답을 주신 것 같다. 우리는 욕심이 많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 요구사항도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차근차근 주실 줄 믿는다. 반드시 여러분과 후대가 세계복음화 할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문제에 속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다. 금디나. 순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더 깨끗한 정금이 되어진다. 종이나 쓰레기나 나무는 타서 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정금이다. 그래서 경제, 가정, 인간관계, 건강, 교회, 국가의 문제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러나 언약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진정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응답받았고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고 성령충만 받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떠한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 우리교회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있는 조건은 현실이다. 그것을 보면 속을 수 있다. 진실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 왜 그 문제가 왔는가. 에덴동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봐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노예생활을 시키셨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허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야 한다. 그게 이면계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교회, 가정의 문제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권을 샀는데 10억에 당첨되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나와 관계가 없을 정도로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더라도 미래에 여러분과 교회와 나라가 받

을 응답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있어야 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확실한 미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일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정확한 그림이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린다. 그것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문제의 근원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 현장의 빛과 향기로 살기를 바란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여러분을 버리지 못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을 아끼자라고 부르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까지 보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어라.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이 있었지만 참된 성전과 참된 말씀을 회복한 복음적인 왕들은 소수였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많은 왕들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들은 손에 꼽았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란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된 성전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 귀신, 흑암, 재앙, 공허가 물러난다. 그리스도의 회복이 참된 성전의 회복이고, 나의 회복이고, 세상의 회복이다. 참된 성전과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저주와 재앙과 흑암은 물러가게 된다. 지금도 건디기 어려운 문제와 흑암에 눌려있는 현장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환경, 환각, 우울증, 중독, 자살충동, 공허와 불행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처음 개척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었다. 그 분이 집안이 우상숭배해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은 너무 세서 일반 귀신은 못 쫓아내니까 교회에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날 그 큰 딸이 문제가 생겼다. 치킨집을 했는데 가게에 있다가 계속 자기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내려간다고 하더라. 지금 계속 심방가는 30년 동안 귀신 본 집사님이 3주 전에 귀신이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 귀신과 환경이 없더라도 공허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욕심을 부리다 진정된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답을 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역대하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역대하서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역대하 끝부분의 내용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직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성경은 말라기까 마지막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이다. 결론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을 보면 고레스 왕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보낸 것이 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참된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재건을 하게 하셨다. 만약 우리들이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과 만단을 통해서라도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포로기 전에 기록한 역사서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기록한 역사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다시 시작하는 유대민족에게 끝까지 유대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복음적인 말씀과 언약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에 빠지도 록 말을 한다. 집안에 그런 어른들이 있기도 하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시기, 질투하고 못하면 무시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니 거기에 희망을 두지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기를 축원드린다. 여러분이 잘 하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성공 안 하면 되는가. 아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 그 현장에서도 승리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주 독하게는 못하지 않는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찾자.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과 현장과 사람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왔는데 적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응답받기를 바란다. 한 번만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아무 관계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라. 그러면 문제가 올수록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릇을 닦는 과정이니 뜻을 발견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 현장을 고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먼저 고쳐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안 믿는 상태가 된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 나는 갈수록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더라. 우리가 왜 그럴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그리고 오늘은 역대하인데 이진 왕들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곤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응답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이다. 무슨 말일까? 많은 사람들은 역대기를 읽으면서 왕들만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참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재앙, 저주를 못 이긴다.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사사 14명이 나왔는데 이런 인물들이다. 그리고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온다. 선지자 이야기가 쭉 나온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선지자 이야기가 쭉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사람이 왔는데도 인생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다. 그게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도 인생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렇게도 많은 대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나왔는데도 인생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만 말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성경 읽는 것 만해도 도움이 된다. 성경을 읽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 성경을 복음적으로 읽을 수 있는 복음을 알고 있다. 그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구나.

1.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1)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창 3장, 6장, 11장) 대학에서도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죄문제이다.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다.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야만 인간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인간에게 기대하지마라. 그래야만 그리스도 필요의 절대성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봤을 때 착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 별 악한 생각을 다 한다. 여러분은 선한가?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모르면 마귀가 들끓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다 실망하고 마귀에게 통로를 내주어 속게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손해와 이익을 생각한다. 돈을 생각한다. 그 기준이다. 진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선하지 못하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거듭나게 된다.

(2)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술, 점술, 우상이다. 이번 에 일본의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다. 모든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가면서 제왕과 저주를 본 이야기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티베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네팔 등 오늘 날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응답을 받아라. 이스라엘에 있는 남은 자 랍넛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이 되었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 여러분이 다 에스더, 다니엘, 요셉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흑암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빛을 비추어도 달리 보인다. 흑암을 쫓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어두운 세상에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다들 틀린 길을 가고 답답하니까 타로를 보러가고 점을 보러 간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안 믿으니까 귀신에게 물어본다. 대통령도 무술, 점술에 다 잡혀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라.

(3) 세 번째로 다음은 이스라엘이 당한 7재앙의 원인이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7번의 큰 재앙이 들어닥쳤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이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재앙, 저주, 전쟁을 막게 된다. 남은 자 랍넛트의 기도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지금도 강대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라. 재앙을 막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4) 네 번째로 다음은 6가지 저주이다. 마귀자녀로 영적, 정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산다. 어떤 사람은 잘 때마다 죽을까봐 걱정한다고 하더라. 그게 내세문제이다. 성공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개인에게 6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것은 6가지 저주라고 볼 수 있다. 불신자상태 6가지가 온다는 것이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성공했든 안 했든 무조건이다.

(5) 그리고 말세지말의 파멸이다. 앞으로 말세지말에 큰 파멸이 오게 되어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 지금도 비피람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속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세계는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닥다 개인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유럽은 동성애와 마약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더라. 교회까지 침투해서 선교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유럽의 모든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부족하였지만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다섯 명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은 아사 왕이고, 세 번째 왕은 여호사밋이다. 네 번째 왕은 히스기야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왕은 요시아이다. 이 왕들은 성전과 말씀과 예배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회복한 왕들이다.

(1) 첫 번째는 솔로몬이다.

① 첫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세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따라 올수 없는 다른 지혜를 얻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집, 아집, 집착, 내 주장, 내 생각, 돈걱정, 잘난 척하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받아드리지 못한다. 그게 영적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경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즉, 9가지 삶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9가지 삶의 포인트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이다. 모든 분야에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전문성이다. 인간관계에는 위, 아래, 옆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만 보지 말고 위, 아래, 옆을 봐야 한다. 어른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란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위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

② 성전건축을 완성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성전을 건축했다.

③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역대하 9장 22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다. 후대들은 꼭 솔로몬 왕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한다.

(2) 다음은 아사 왕이다.

① 우상을 제거했다. 아사 왕은 왕이 되어서 모든 우상을 파괴시켰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②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였다.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종교개혁을 한 나라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 그 나라들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다.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3) 다음은 여호사밋 왕이다.

① 다윗의 길을 걸었다. 성경에 나오길 “다윗의 처음 길로”라고 말씀하고 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밋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② 그리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선포하고 지켰다고 했다.

③ 그리고 나중에 전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현장에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4) 다음은 히스기야 왕이다.

① 모든 우상을 다 파괴시켰다.

② 그리고 앗수르에 연락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선조들이 세금을 냈는데 이제 는 낼 수 없다고 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다.

③ 그러자 앗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완전히 이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로 살아났다.

④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큰 실수도 나온다. 사절단이 왔을 때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고 무기와 보석을 자랑했다. 그걸 바벨론이 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빼앗으러 온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왕으로 남게 되었다. 치유의 응답도 받았다. 이러한 왕의 응답을 받아라.

(5) 끝으로 요시아 왕이다.

① 성전수리를 했다. 이 사람이 다윗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했다. 우상을 다 파괴시켰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전수리이고 회복이다.

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찾아서 전달했다. 종교개혁을 했다.

③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회복한 사건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과 가문과 후대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적인 CVDIP가 실현되는 역사가 삶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는다.

(1) 언약 :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2) 비전 : 우리들이 역대기서를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왕들과 세상의 서민과 지도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겠다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꿈 : 역대기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가져야 할 우리의 꿈은 사탄과 세상에 빼앗긴 우상의 문화를 복음문화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것이 후대 랍넛트들에게는 인생의 절대목표가 되어야 한다.

(4) 이미지 : 우리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들로 일어나도록 이상을 그리며 기도해야 하겠다.

(5) 실천 : 우리는 악한 왕들의 잘못된 부분은 버리고 선한 왕들처럼 말씀으로 우리들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실천과 도전을 날마다 해야 하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서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